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도와 표준특허 역량 키운다!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

특허청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팀의 정성중 팀장은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앞으로 표준특허를 사용한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ies, 이하 NPEs)의 공격이 지금보다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2013년 NPEs 동향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NPEs로부터 소송을 당한 23개의 국내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에 가까운 11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업/기관별 표준특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이 49.4%, LG가 38.2%로 전체의 87.6%를 차지하는 등 지나치게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더욱이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보유 비중은 0.8%(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표준특허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특허, 표준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의 힘만으로는 달성 어렵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표준특허 역량을 쌓아나가는 것과 동시에 특허, 연구개발(R&D), 표준 관련 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특허청은 연구개발(R&D), 표준 및 공정 거래 관련 부처들과 공동으로 ‘2014년 표준특허정책 포럼’을 주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국내 기관별 표준특허 보유 현황('13.12. 기준)

순위	기관명	구분	ISO	ISO/IEC JTC1	IEC	ITU-T/R	IEEE	ETSI	계	비중
1	삼성전자	대기업		71		16	10	1,789	1,886	49.4%
2	LG전자	대기업		32		24	14	1,388	1,458	38.2%
3	ETRI	공공연		75		71	29	112	287	7.5%
4	팬택	대기업						69	69	1.8%
5	휴맥스	중소중견		26					26	0.6%
6	현대전자산업*	대기업		19			3		22	0.6%
7	LS산전	대기업			18				18	0.5%
8	SK텔레콤	대기업		1		8		7	16	0.4%
9	연세대학교	학교				11			11	0.3%
10	광주과학기술원	학교		6					6	0.2%
11	건국대학교	학교		6					6	0.2%
12	전자부품연구원	공공연		4					4	0.1%
13	파크시스템스	중소중견	3						3	0.1%
14	광운대학교	학교				1			1	
15	삼성SDI	대기업			1				1	
16	LG유플러스	대기업				1			1	0.1%
17	오소트론	중소중견					1		1	
합계			3	240	19	132	57	3,365	3,816	100.0%

*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 선언 시 기관명 기준

문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표준특허반도체팀 (042-481-5429)